

보도시점 2024. 2. 23.(금) 배포 2026. 2. 23.(금)

이기철 청장, 미국 시카고·샌프란시스코·LA 민생현장 방문

- 한국발전상 알리기 등 정책 방향 소개하고 애로사항 청취...재외선거 참여 독려

-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미국 시카고, 샌프란시스코, 로스앤젤레스(LA)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현지 동포사회와 소통한다.
 - 이 청장은 재미동포 중 약 100만 명(47%)이 거주하는 미국 내 주요 거점도시에서 ‘한국의 정치·경제 발전상 알리기’ 등 재외동포청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, 동포사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.
- 방문 일정 첫날인 26일 시카고에서는 한인회관을 찾아 한인회 관계자들과 차세대 육성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.
 - 이어 중서부 지역 동포 50여 명을 초청해 만찬 겸 간담회를 열어 ‘재외동포청 출범 100일 로드맵’ 등 청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, 미 중서부 동포사회의 건의 사항을 듣는다.
 - 특히 이 청장은 거주국에서 동포사회의 지위를 향상하고 한인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‘한국의 정치·경제 발전상 알리기’의 중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.
 - 주네덜란드 대사로 재임할 때 현지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을 수록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.
- 다음날 27일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해 북캘리포니아주 동포들과 만남을 이어간다.

○ 현지 한인회관 준공을 기념해 여는 동포 초청 간담회에는 50여 명의 동포가 참석하기로 했다.

- 이 청장은 샌프란시스코 및 베이지역 동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인회관 리모델링 사업 완공과 개관식을 축하하고, 재외 동포청의 출범 의의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한 뒤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.

○ 28일에는 한국 문화 전파에 힘쓰는 코리안 센터(Korean Center Inc.)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, ‘한국의 정치·경제 발전상 알리기’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.

□ 이 청장은 마지막 일정으로 재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를 찾는다.

○ 이곳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해외(오렌지 카운티)에서 개최된 제21차 한인비즈니스대회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, 동포 경제인 20여 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.

- 간담회에서는 청이 추진하는 ‘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’ 등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사업의 참여를 독려하고, 해당 사업에 대한 동포 경제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.

- 또 올해 전북에서 개최하는 제22차 대회의 발전 방향도 모색한다.

□ 한편, 이 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포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동포들의 적극적인 재외선거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미주유럽동포과	책임자	사무관	박준영	032-585-3169
		담당자	주무관	이영복	032-585-3168